자하 하디드와 다니엘 리베스킨드

아부다비아트센터, (2007 2012)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

자하 하디드

최근 일련의 국제 현상설계들을 살펴보면가장많은현상설계당선자는 2004년도프리츠커프라이즈를수상한이라크출신의 여성 건축가 자하 하디드(Zaha Hadid)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야심찬 건축 프로젝트인 「동대문운동장 공원화계획」역시하디드가당선되어현재실시설계를열심히진행중에있다. 마치디즈니 만화 영화인 인어공주에 나오는 문어마녀처럼 생긴 이 건축가가 왜 이렇게도 최근에주목을받는것일까?

하디드는영국AA스쿨을졸업한후 렘쿨하스와 함께 OMA(Office for Metropolitan Architecture)를설립한 건축가이기도하다. 그의초기작품은거의지어질수없는 황당한 그림들뿐이었다. 가물에콩나듯이지어졌던몇안되는작품도 「비트라 소방서(Vitra Fire Station, 1993)」의경우에서와같이기능적인질책을피하기힘든문제투성이의애물단지였었다. 그런그가어떻게하다가이렇게잘나가는 건축가가 되었을까? 아마도 정답은 '프랑크게리 일것이다. 거의모든지자체공무원의섭외0순위의프랑크게리가 「빌바오 구겐하임(Guggenheim Bilbao Museum, 1997)」을완성한이후, '빌바오 이펙트'라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혁신적인 형태의 건축이 돈이 된다는 공식이 증명되면서 너도나도 이전에 보기 힘든 새로운 형태의 건축을 추구하였고, 비현실적인 형태의 대표적인 주자 중에 하나였던 자하 하디드도 잘 팔리기 시작한것이다. 물론그배후에는어떠한형태도 실현시킬 수 있을 정도로 지난 20년간건축기술이 발전했다는사실도무시할수없다.

하디드는 꽃의 모양에서 영감을 받아 건물의 형태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소위 심오한 철학적 건축가에 비해서 하디드 자신은 논리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비트라소방서, (1993) 바일암라인, 독일.

디자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보통 건축가들이하디드라인이라고부르는직선과곡선이잘조화를이룬형태는그만의독특한건축적스타일을완성하고있다.

두 부류의 건축가

개인적으로 건축가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본다. 하나는 형태를 추구하는 부류와 다른 하나는 공간을 추구하는 부류이다. 다시 말해서 솔리드한 매스에 주안점을 두는 사람과 그 솔리드 매스가 만들어내는 빈 공간에 주목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분류는 유명한 심리학자 루빈이 그린 ‘ 꽃병과 두 얼굴 이라는 그림에서더잘설명될수있다. 꽃병을보는동안은 얼굴이들어오지 않고, 얼굴을보는동안에는 꽃병을 인식 못하는 경험을 모두 해보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건축가들은 솔리드오브제혹은 보이드공간둘 중 하나에 중점을 두고서 디자인을 하게 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그렇다면 하디드는 얼굴을 보는 사람인가, 꽃병을 보는 사람인가? 하디드는 꽃병을 보는 사람이라고 해야겠다. 그는 솔리드 오브제의 형태에 중점을 두고서 디자인을 한다. 따라서, 형태는희한하고 아름다울지 모르나, 대부분의 경우 공간과 프로그램의 고민에 의해서 나오는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에 문제가많다. 이러한스타일의 건축가는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특정 형태의 공간이 요구되는대형건물인경우에는큰문제가되지않으나, 소규모의 건축물로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진다. 다행히도 최근 하디드는 박물관 같이 형태에 상관없는 큰 규모의 건축물을 주로 수주하기 때문에 밑에실무직원선에서기능적인문제를해결해주고있는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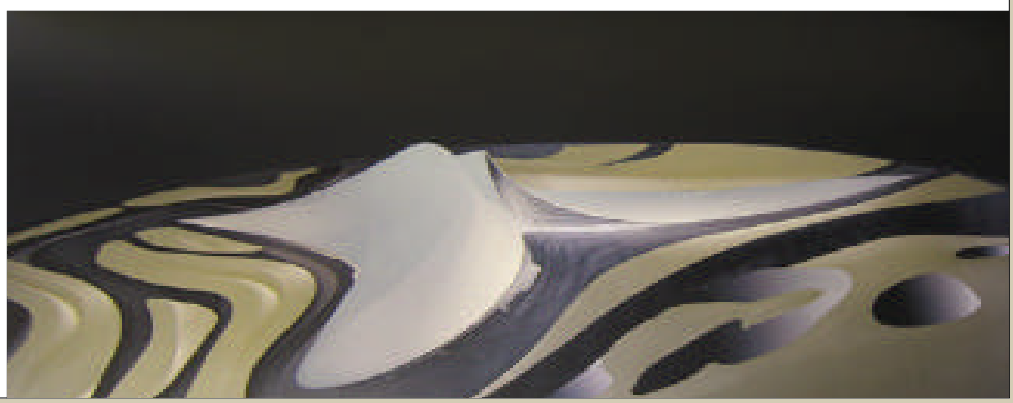
대가들은 모두 대표적인 주택이 있게 마련이고, 주택을통해서자신의건축철학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디드는 그러한 주택이 없고 앞으로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오브젝트가되는가구나조명기구정도를할수있을지모르나사적이고복잡한 삶을담아내기위해서작은단위로나누어지는주택공간은하디드가사용하는곡선을 사용해서는 아름답지도 기능적이지도못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한 문제때문에개인적으로하디드는반쪽짜리건축가라고 생각한다. 아직 잘나가는 이유중의하나는그가최근 디자인한대형건축물이 지어진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마도 동대문운동장도 완성되고나면투시도에서보여주는모습과는크게차이가있을것이다. 오히려거대한 흉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하다. 하디드에대한비판은여기서줄이기로하고그의작품의 진화에대해서살펴보자.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형태

아이젠만 같은 건축가도 그러했듯이 하디드역시건축표현기법, 특히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은 건축가이다. 그의초기 작품들을보면건축가들이 사용하는 수평/수직자에서는 탈피하여 박스 형태의건축은하지않으나, 아직도삼각자는버리지못해서인지사선이많이도입된, 당시 유행하는해체주의 스타일을보여준다.

초기에는지어진건축물이없었기에하디드가 아크릴 물감으로 그린 시커먼 조감도가 유명했었다. 시대가 바뀌어서 게리 같은 건축가가 선박, 비행기 디자인에 사용되는‘ CATIA’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멋진 형태의 건축물을 완성하게 되자, 하디드는‘ 라이노(Rhino)라는 주로보석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그만의 독특한 직선과 곡선이 조화를 이룬 건축 스타일을 완성하게 되었다. 기존의 3D Max 같은 소프트웨어는 곡선을눈대중을통해대략적으로그려냈다면, 라이노는곡면을만들때숫자를타이핑해넣어서원하는형태를수학적으로 정확하게그릴수 있는특징을 가지고있다. 이렇게해서완성된디자인은현재전세계적으로 랜드 마크를 원하는 많은 위

(좌) 꽃병과 두 얼굴, (1915) 에드가 루빈. (우) 두바이 오페라하우스, (2006)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



정자들에의해서러브콜을받고있다.

과거의역사를통해서알수있듯이 공사기간이10년이상되는대형프로젝트들은 초기 현상설계 당선시에는 찬사를 받으나, 완공되었을때에는이미건축스타일이 유행을 지나서 그다지 주목을 받지못하는경우가많았는데, 하디드의작품은 이러한 시간의 시험을 어떻게 견디어낼지 궁금하다. 만약에시공할때 새로운 구조적인 혁신성이 있다면 시간이 지나도 각광을 받을 것이나 그렇지 못하다면완공시에퇴물취급을면하기힘들것이다.

다니엘 리베스킨드

다니엘 리베스킨드(Daniel Libeskind) 하면떠오르는 몇가지키워드들이있다. 유대인건축가, 학창시절피아니스트, 네모진안경, 벌어진앞니등이다. 리베스킨드가세상에이름을알리게된계기는「유태인박물관(Jewish Museum, 1997)」현상설계에서당선되면서부터이다. 이작품은 당시 유행하던 해체주의 스타일의 건축물로서파격적인공간디자인이훌륭한 작품이다. 건축가들 중에서 설(說)을 잘 푸는대표적인건축가들을선정한다면아이젠만, 츄미, 쿨하스와더불어서 선정될 사람이 리베스킨드이다.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얼마나 잘 지어내는지 리베스킨드가하는유대인박물관프레젠테이션을 듣고 랍비가 울었다는 전설이 있다.

그가 단골로 이야기하는 것이 역사성인데, 역사적 상처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번개 모양으로 생겨난 매스에 찢겨나간 듯이생긴유리창, 그리고내부공간을관통하는 형태의 보등이특징이다. 이러한 그의 공간 스타일은 이전에는 없었던 충격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며 새로웠다. 하지만첫작품이후그가장황하게역사성과지역성, 역사의 축운운하면서 설명한 디자인이전혀다른콘텍스트의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비슷한 모양으로 나온다는 점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더욱 황당한 것은 유태인 박물관의 매스 모양과 같은 모양으로유태인박물관이전에만들어진 조각도 있는데, 그렇다면 리베스킨드의 현학적인 설명은 자신이 원하는 형태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차한 변명이 아닌가 하는생각도든다.

유태인박물관, (1997) 베를린, 독일.

유태인 건축가

잘 알려진 사실이겠지만, 미국 사회에서 유태인은 성공하는 데 남보다 특혜를 받는 경향이 있다. 건축계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프랭크 게리(Frank Owen Gehry), 리차드 마이어(Richard Meier), 피터아이젠만(Peter D. Eisenman) 등이 유태계이다. 정 · 재계및 언론, 문화예술계에유태인들이지도층으로있으니많은 자본가와정치, 언론의힘이모아져서만들어지는건축산업의경우에유태인건축가가 성공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시다시피 프리츠커프라이즈 수상자 중흑인은한명도없고, 아시아인중에는 경제 선진국인 일본 정도만 명함을 내미는 정도이다. 이를 보아도국가나집단의 경제력과 유명 건축가 사이에는 떼어낼 수없는연관성이존재함을엿볼수있다. 리베스킨드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데는「월드트레이드센터 재개발 현상설계」대회의1등수상이큰영향을미쳤다. 하지만 그 배경을 살펴보면 유태인으로 덕을 본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심사위원이 선정한 1등은 라파엘 비뇰리(Rafael Vinoly)와 시게루 반(Shigeru Ban)이 합작한 THINK팀의 작품이었는데 최종 결정시에 파타키 뉴욕주지사와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우겨서 리베스킨드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유태인인 블룸버그 시장과 유태인들의 정치 자금을 받는 파타키 주지사가 남미 출신의 비뇰리와 일본인 시게루 반 대신에 유태인 리베스킨드를 뽑은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물론 작품성으로 당선되었지만,「911 월드트레이드센터메모리얼」역시 이스라엘 사람인 마이클 아라드(Michael Arad)가 선정되었으니,「월드트레이드센터 재개발」은 유태인 잔치라 할 만하다. CJ

유현준
홍익대건축학부교수